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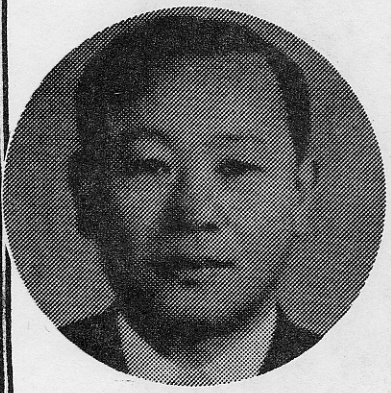
延安車氏族譜를 編纂하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祖上을 섬기고 同姓同本の의 일가끼리의 모임으로 가져
宗親間의 和合과 親睦을 圖謀하는 것을 美德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음은 오랜 歲月을 通하여 先祖님들께서 쌓으신 어지신
德과 빛나는 功績의 노상임을 우리는 다같이 알아야 할 것이니 우리
車門은 멀리 高麗初에 經綸이 붙으셨던 始祖(諱孝全·延安君) 어른의 遺
德으로 連綿히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의 繁榮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어른들로부터 우리의 祖上이 훌륭하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지만 어떤 어른들께서 어떻게 훌륭하셨는지 詳細히 알지 못하고 지내
는 것이 事實이며 우리 世代들은 歷史에는 正統하여 歷史上 偉人들에 對하
여는 잘 알면서도 우리의 家系나 祖上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史蹟들에 對하
여는 疎忽하게 생각해왔을 뿐 아니라 우리 祖上님들을 잊어왔던 것이 現實입니다.

나다 더욱이 族譜라던가 先祖에 관한 말을 하면 이는 封建的이고 保守的이며 그
은 생각인 것으로만 認識하여 온 것 또한 事實이지요.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世界
여러 나라에서도 根本를 중히 여기게 되면서 뿌리를 찾는 등 譜學에 對한 새
로운 認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貴重
한 先祖님들의 열이 담긴 族譜를 찾았읍니다. 우리는 此際에 온 마음을 다스
現代人으로서 우리 門中의 由來와 始祖以下 祖上님들의 遺業을 받들어 倫
理觀을 確立하고 우리의 높은 理想心과 矜持속에 友愛하고 和合하여 우리의 알날
을 開拓해 나가는 것이 先祖에 對한 後孫된 道理임을 銘心해야 할 것임을 仰望
하는 바입니다.

西紀一九八八年十二月三十日

四十世孫 尚錫 謹識



延安車氏文學公后義州旅譜

一世

車孝全

號江村
謚武烈公
公當麗朝創業之日有安民賑粟經邦奠社之恤又因公考大承公車來糧達之功命復舊姓車氏封大匠伯延安君食邑千戶
墓延白郡海龍面放羊洞子坐原
配夫人海州崔氏父開國功臣凝墓雙兆

二世

子秀毗

高麗太保
謚正度公
配夫人張氏

三世

子季隣

號龍門
高麗廣平侍郎
謚文興侯
配夫人丁氏墓熊川未坐

四世

子用杞

高麗內史門下侍郎
配夫人張氏墓上全

五世

子伯炤

號潛淵
高麗侍御中丞禮部尚書
配夫人金氏墓城南赤岨

六世

子茂鋼

二見

正安車氏文學公后義州旅譜